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주 한국 수출, CPI, 미국 ISM 제조업, 고용보고서 ① 한국 9월 수출/입(1일) 8월 수출 YoY 68.6%, 수입 YoY 22.5% ② 미국 9월 ISM 제조업 PMI(1일) 8월 ISM 제조업 PMI 54.6 ③ 한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2일) 8월 CPI YoY 3.1% MoM 0.2% ④ 미국 9월 고용보고서(2일) 8월 비농업고용 16.2만, 실업률 4.1%	10월 주간 경제지표 주간 원유재고 [EIA(에너지정보청)] 주간 주택융자신청자수 [MBA]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노동부] 월간 원유시장보고서 [EIA(에너지정보청)] 30년물 고정모기지금리 [프레디맥] 미 연준 대차대조표 보고 [FED] 주간 원유 채굴장비수 [베이크어휴즈] 어닝 인사이트(팩트셋) KB 주택시장동향 [KB국민은행]	10월 주요 일정 IMF/WB 연례 추계 회의(12~18일) 연준 베이지북 공개(14일) EU 정상회의(15~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22일) 유럽중앙은행 ESMO(23~27일) FOMC(27~28일) ECB 통화정책회의(28~29일) BOJ 금융정책위원회(29~30일)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10월 중) 중국 정치국 회의(10월 중)	11월 주요 일정 미국 중간선거(3일) BOE 통화정책회의(5일) MSCI 반기 리뷰 발표(11일) 중국 광국제(11일) APEC 정상회의(18~19일) G-STAR 2026(19~22일) 연준 베이지북 공개(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26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27일) WGBI 편입 종료(11월 중)	1 한국 수출입 ① 9월 수출/입 YoY 9월 무역수지 ② 8월 실업률 ③ 9월(최종) S&P 글로벌 제조업 PMI 9월 ISM 제조업 지수 8월 건설지출 MoM 실적 나이키 휴장 중국, 홍콩(국경일)	2 미국 고용보고서 ① 9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9월 도교 소비자물가지수 YoY 8월 실업률 ② 9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8월(최종) 내구재 수주 MoM 8월 제조업 수주 MoM 9월 고용보고서 공개 - 비농업고용, 실업률, 임금상승률 등 휴장 중국(국경일)	3 10월 전망 당분간 펀더멘털보다 금리 방향성이 시장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 9월 FOMC 전후 정책·재정 불확실성을 선반영했던 장기금리 상승세가 진정될 경우 단기 반등 시도 가능. 중간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트럼프 행정부 역시 시장 불확실성을 추가로 높이기보다 정책 강도를 조절할 가능성. 다만 이익 전망치가 정제된 만큼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금리 변화에 따른 제한적인 박스권 등락을 상정하는 대응 전략이 적절
4 미국 ISM 서비스업, 한국증시 휴장 ① 미국 9월 ISM 서비스업 PMI(5일) 8월 ISM 서비스업 PMI 55.4 ② 한국 개천절 대체휴일 휴장(5일) 휴장 전후 거래대금 감소 및 수급 공백 유의 ③ 중국증시 휴장(1~7일) 휴장 전후 거래대금 감소 및 수급 공백 유의 ④ 한국 한글날 휴장(9일) 휴장 전후 거래대금 감소 및 수급 공백 유의	5 한국 개천절 휴장 ① 8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② 9월 ISM 서비스업 지수 9월(최종) S&P 글로벌 서비스업/종합 PMI 휴장 한국(개천절 대체휴일), 중국(국경일)	6 ① 9월 외환보유액 ② 8월 소매판매 YoY ③ 8월 수출/입 MoM 8월 무역수지 휴장 중국(국경일)	7 누리호 5차 발사 ① 9월 외환보유액 공개 누리호 5차 발사 휴장 중국(국경일)	8 ① 8월 경상수지 8월 경상수지 ② 8월(최종) 도매재고 MoM 9월 뉴욕 연준 1년 기대인플레이션 증시 한국 옵션 만기일 실적 펩시코, 델타항공	9 한국 한글날 휴장 ① 10월(잠정)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10월(잠정) 미시간대 1년 기대인플레이션 10월(잠정) 미시간대 5~10년 기대인플레이션 휴장 한국(한글날), 대만(국경절 대체휴일)	10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은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00%로 +25bp 인상. 7월에 이은 연속 인상으로, 첫 인상 직후 백투백 인상은 역대 최초. 물가 통제에 방점을 둔 선제적 금리 인상은 사후적으로 최종금리 수준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내년 기저효과 등에 따른 성장 둔화 국면에서 정책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당사는 11월 내 추가 1회 인상 + 27년 초 1번의 추가 인상 경로를 전망
11 미국 CPI, PPI, 소매판매 ① 한국 10월 수출/입 10일간(12일) 9월 10일간 수출 YoY 82.6% 수입 20.7% ②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14일) 8월 CPI YoY 3.4% MoM 0.4% ③ 미국 9월 생산자물가지수(15일) 8월 PPI YoY 5.4% MoM 0.4% ④ 미국 9월(속보) 소매판매(15일) 8월 소매판매 미발표	12 일본 체육의 날 휴장 ① 10월 수출/입 10일간 YoY 회의 IMF/WB 연례 추계 회의(~18일) 학회 월드 ADC USA 2026(~15일) 행사 파리모터쇼 2026(~18일) 휴장 일본(체육의 날)	13 미국 실적시즌 시작 ① 9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9월 NFIB 중소기업 낙관지수 9월 기준주택매매 행사 세미콘 웨스트 2026(~15일) 실적 JP모건, J&J, 골드만삭스 씨티, 블랙록, 웰스파코	14 미국 CPI ① 9월 수출/입 YoY 9월 무역수지 9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9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② 9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행사 제 28회 반도체 대전 SEDEX(~16일) 공개 연준 베이지북 실적 ASML, 애플, 엔비디아, 모건 스탠리	15 미국 PPI ① 8월 핵심 기계 수주 YoY 8월(최종) 광공업생산 YoY ② 8월 산업생산 MoM ③ 9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9월(속보) 소매판매 MoM 10월 필라델피아 연준 기업 전망 지수 회의 EU 정상회의(~16일) 실적 TSMC, 찰스 슈왈프	16 ① 9월 수출/입물가지수 YoY 9월 실업률 ② 9월(최종) 소비자물가지수 YoY ③ 9월 수출/입물가지수 YoY 9월 광공업생산 MoM 10월 뉴욕 연준 서비스업 활동 지수 증시 미국 옵션 만기일	17 FOMC 연준은 금리 동결을 고집하고 있으나, 9월 FOMC에서 인상 전망이 높아진 상황. 7월 회의도 동결이었으나, 소수의견 3인(+25bp)이 등장했고, 이후에도 전쟁 지속으로 유가 부담이 심화. 위시는 2% 물가 목표를 강조하면서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9월 단발성 인상까지는 시장의 인내력의 범위 내로 볼 수 있지만,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인식될 경우 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음
18 중국 실물지표, 한은 금통위, 일본 CPI ① 중국 실물지표(19일) 8월 산업생산 YoY 5.2% 소매판매 YoY 0.4% ② 한은 금융통화위원회(22일) 백투백 인상 이후 통화정책방향 주목 ③ 일본 9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23일) 8월 전국 CPI 미발표 ④ 미국 10월(확정)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23일) 심리지수 둔화 및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주의	19 중국 실물 지표 ① 3분기 GDP YoY 9월 소매판매 YoY 9월 광공업생산 YoY 9월 실업률 ② 10월 NAHB 주택시장지수 휴장 홍콩(중양절)	20 ① 10월 ZEW 경기기대지수 10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지수 9월 주택착공건수 9월 미결주택매매 MoM 실적 코카콜라, GE 에어로스페이스, RTX 넷플릭스, 필립 모리스, 록히드 마틴, 처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튜이티브 서지컬	21 ① 9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10월 수출/입 20일간 YoY ② 9월 수출/입 YoY 9월 무역수지 실적 SAP, IBM, AT&T	22 한국은행 금리 결정 ① 9월 경기선행지수 회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실적 인텔, 티모바일	23 미국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 ① 9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YoY ② 10월(잠정) S&P 글로벌 제조업 PMI 10월(잠정) S&P 글로벌 서비스업/종합 10월(최종)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10월(최종) 미시간대 1년 기대인플레이션 10월(최종) 미시간대 5~10년 기대인플레이션 학회 유럽중앙은행 ESMO(~27일) 실적 P&G,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24 BOJ 금융정책위원회 7월 회의에서 동결 결정(1.0%)을 내린 BOJ는 9월 인상이 유력. 인상 기조하에 있는 BOJ는 인상 여부보다 속도 전망이 중요. 최근 엔화는 마-일 공조개입 경계와 BOJ 금리 인상 가속 가능성이 제기되며 강세 흐름으로 전환. 엔화 강세 전망 심화 시 캐리 청산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미국의 고금리 상황과 연중반 글로벌 AI 밸류체인 주식들의 선제적 조정 움직임 고려 시 극단적인 수급 변화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
25 FOMC, ECB, BOJ 금리 결정, 빅테크 실적 ① FOMC(한국시간 29일 새벽 3시) 통화정책회의 방향 및 돈 주목 ② ECB 통화정책회의(28~29일) 금리 인상 여부 및 통화정책방향 주목 ③ BOJ 금융정책위원회(29~30일) 금리 인상 및 인상 가속화 여부 확인 ④ 빅테크 실적 발표(28~29일) 실적 모네타 및 AI CAPEX 투자 지속 주목	26 대만 광복기념일 휴장 ① 9월 시카고 연준 국가 활동 지수 10월 델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 휴장 대만(광복기념일 대체휴일)	27 한국 GDP ① 10월 소비자심리지수 3분기(속보) GDP YoY ② 9월(잠정) 내구재 수주 MoM 9월 신규주택매매 10월 리치몬드 연준 제조업 10월 CB 소비자심리지수 회의 FOMC(~28일) 실적 비자, 유나이티드 헬스, 노바티스 시게이트, 넥스트에라 에너지	28 FOMC 금리 결정(29일 3시) ① 9월(잠정) 도매재고 MoM 회의 ECB 통화정책회의(~29일) 실적 테슬라, 램리서치, GE 노보바, 암페셀	29 ECB 금리 결정 ① 9월 개인소득 9월 개인소비지수 9월 PCE 물가지수 YoY 9월 근원 PCE 물가지수 YoY 3분기(속보) GDP QoQ 회의 BOJ 금융정책위원회(~30일) 실적 애플, 아마존, 일라이릴리, 마스터카드, 쉘 머크앤컴퍼니, 길리어드, 웨스턴디지탈	30 BOJ 금리 결정 ① 9월 광공업생산 YoY 9월 소매판매 YoY ② 9월 실업률 10월 도교 소비자물가지수 YoY ③ 3분기(속보) GDP YoY 9월 실업률 ④ 10월 MNI 시카고 PMI 실적 엑손 모빌, 애플비, 세브론, 린데, 사노피	31 ① 10월 제조업/비제조업/종합 PMI

일자	지역	중요도	이벤트	내용
10월 초 (예상)	한국	상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7/7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당시 매출 171조원과 영업이익 89.4조원으로 전년 대비 1,810% 증가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 분기 영업이익 세계 1위에 등극. 그럼에도 차익 실현 매물 출회에 더해 반도체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이어지며 주가는 변곡점을 형성하며 하락 구간에 진입한 바 있음 - 금번 실적 발표를 통해 하반기 이후에도 반도체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 현재 환율 여건 등 이익 전망 상향 흐름에 부정적 변수가 유입되며 일부 보수적인 시각들도 형성 중. 계절적인 측면에서도 한국 증시 이익 전망치 추이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국면인 만큼 실적 확인 이후 컨센서스 변화에 유의할 필요. 정확한 발표일은 아직 미확정이나 과거 패턴상 10월 첫째주에서 둘째주가 유력
10/22	한국	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 한국은행은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25bp 인상. 8월 인상은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으로, 인상 재개 직후 백투백 인상은 역대 최초.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7%p, +0.8%p 상향한 3.3%, 2.9%로 제시하면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 당분간 물가에 방점을 둔 정책 운용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음. 한편 점도표 상으로 전체적인 전망이 상향됐으나, 중위수가 3.25%, 최상단이 3.5%로 형성. 우려했던 부분은 상단이 강한 매파 성향을 보이는 것이었으나, 중위수 및 상단 모두 시장의 컨센서스 주변에서 형성된 만큼 금리의 추가적인 급등을 야기하는 소재로 작용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 - 금번의 선제적 금리 인상은 물가 통제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인 금리 정책을 단행한 것으로, 사후적으로 최종금리 수준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내년도 기저효과 등에 따른 성장 둔화 국면에서 정책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당사는 11월 내 추가 1회 인상 + 추후 1번의 추가 인상 옵션을 전망. 이 같은 전망이 유효할 경우 10월 금통위 이후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상 국면의 반환점을 통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는 시중 금리 변곡점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일단 향후 점검 포인트는 ① 9~10월 근원물가 및 환율 경로, ② 환율 하락 이후 교역조건 변화 여부 등에 있음
10/27 ~28	미국	상	FOMC	- 연준은 7월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3.50~3.75%)했으나, 소수의견 3인(25bp 인상)이 등장. 이후에도 유가 부담은 심화됐고, 인플레이션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았음. 결국 연준은 금리 동결을 고집하고 있으나, 9월 FOMC에서 인상 전망이 높아진 상황 - 워시는 2% 물가 목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으나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그널과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음. 오히려 '채권금리 상승이 이미 금융 여건을 긴축시키고 있다'는 발언에 인플레이션 늦장 대응(Behind the curve) 우려가 유입. 케빈 워시는 이후 8월 말 잭슨홀 기조연설을 통해 높은 인플레이션 상태, 물가 목표 강조 등을 언급하며 금리 인상 경계심을 높인 상황 - 연준의 금리 인상 시작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제거하고 보면, 이미 시중금리와 기준금리 간의 격차가 100bp 이상(10년물 기준) 확대되어 있고, 사전적인 인상 기대가 형성된 만큼 9월 단발성 인상까지는 시장의 인내력의 범위 내로 볼 수 있을 듯. 그러나 단발성 인상을 제대로 인지시키지 못하고,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인식될 경우 금리 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음에 주의
10/29 ~30	일본	상	BOJ 금융정책위원회	- 현 시점에서 9월 금정위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나, 인상 의견이 우세하며 인상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음. 7월 회의에서 동결 결정(1.0%)을 내린 BOJ는 9월 인상이 유력 - 인상 기조 하에 있는 BOJ는 인상 여부보다 속도 전망이 중요. 최근 엔화는 미-일 공조 개입 경계와 BOJ 금리 인상 가속 가능성이 제기되며 강세 흐름으로 전환. 엔화 강세는 수입물가 경로를 통해 인플레이션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어, 금리 정책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 - 반대로 엔화 강세 전망 심화 시 캐리 청산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미국의 고금리 상황과 연 중반 글로벌 AI 밸류체인 주식들의 선제적 조정 움직임 고려 시 극단적인 수급 변화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